



# 무안군, 양파즙 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 실시

### 식품소비자감시원·보건소 위생팀 70개소 직접 방문 원재료 적정 보관·관리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살펴

무안군은 최근 관내 양파즙 제조·가공업소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무안의 대표 음료인 양

파즙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식품소비자감시원과 보건소 위생팀이 관내 양파즙 제조 업소를 직접 방문했다.

점검반은 ▲원재료 적정 보관·관리 여부 ▲썩거나 상한 원재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들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께서 무안의

대표 음료인 양파즙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양파즙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 영광군, 대구 신세계백화점서 홍보관 및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 ‘가고 싶은 섬 안마도’ 테마 VR체험 및 젤캔들 제작체험 등 진행



영광군은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구기사업’으로 영광군 홍보관과 농수특

산물 직거래 장터 기획전을 진행한다. 영광군 홍보관은 대구 신세계백화점 8층에서 ‘가고 싶은 섬 안마도’를 테마로 하여 안마도

VR체험 및 젤캔들 제작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영광군 대표 관광지·먹거리·특산물 홍보와 앞으로 개최되는 제22회 불갑산 상사화축제 및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또한,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굴비, 모시송편, 찰보리 식혜, 보리분말, 보리쌀, 고춧가루, 유기농쌀 등 영광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강종만 영광군수는 행사 첫날인 8월 12일(금)에는 직접 농수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기도 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가고 싶은 섬 안마도 홍보관을 통해 영광군을 알리고 우리군의 다양한 농수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영·호남의 교류보를 마련하여 대구·경상도 지역의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목포시, 민선8기 첫 시민과의 대화 실시

### 8월 29일~9월 2일...시정 운영 방향 공유하는 소통의 장 마련

목포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시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시정목표인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설명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화는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권역별 시

민이 사회자를 맡아 대화를 진행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과 인터뷰를 사전 촬영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화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신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A등급 선정

신안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원(2022년 90억, 2023년 120억)을 지원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올해는 7,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안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상위 5%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됨으로써 2022년도 기금 90억원, 2023년도 기금 120억원 등 지방비 포함 총 32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다.

신안군에서는 안좌면 자라분교와 압해읍 쌍용초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중장년층의 로컬 메이커 및 디지털 사회혁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 9건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신안군은 고령화율이 전남 4위, 인구소멸지수 고위험군 8위에 있어 인구소멸 위기 지역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인구소멸 대응추진단(1개단 4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신안=이명주기자



## 함평군, 아열대 뿌리채소 ‘멕시코 감자’ 히카마 수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5일,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는 ‘멕시코 감자’로 불리는 히카마(얇민) 수확이 한창이다.

아열대 뿌리채소인 ‘히카마’는 배처럼 아삭하고 단맛이 나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샐러드, 동치미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된다. 또한, 꼬투리와 잎에는 천연 살충성분(로테논)이 있어 생물농약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 인, 비타민이 풍부해 당뇨, 변비 등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으랏차차 영암역사탐험대’ 출동

### 군산·서천지역 일대 다양한 활동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13일 2022 역사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현장 답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4-초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서천시 지역 일대를 이동하면서 모

험활동과 미션투어로 근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하 학생은 “역사는 따분하게만 느껴졌는데 정말 재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